

“새터민 포교 일당백으로 해내죠”



탈북동포정착교육시설 수계식 장면. 북한에서 한복을 한번도 입어본 적이 없는 이들에게는 한복이 인기가.



2013년 12월 통일부장관상을 받은 후 새터민 포교를 같이 하고 있는 안성 칠장사 주지 지강 스님(사진 오른쪽)은 같은 해 7월 통일부장관상을 수상했다.



2010년 청와대에서 통일부 유관기관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초청해 만찬을 진행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오른쪽에 있는 이가 흥성란 포교사다.



새터민 가정체험을 진행한 안양 한마음선원에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하고 있다.

그는 퇴소하고 나서 전화를 걸어오는 새터민들의 경조사도 고박 쟁진다. 그럴때는 가족처럼 가깝다 생각해서 전하는 소식이나 만큼 모르겠 할 수가 없다. 때문에 그는 단 몇 분이라도 챙기고 나서 그들을 만나러 간다. 자신의 움직임이 새터민들에게는 곧 불교가 움직이는 것으로 여겨지니 내키는대로 행동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가 이토록 새터민 포교에 올인하게 된 연유는 따로 있지 않다. 포교사 시험도 주위 권유에 우연히 응시해 합격한 것이 다고 사설에 배속된 것도 집과 가깝다는 이유가 전부였다. 동기는 갖춰져 있지 않았다. 단지 현장에서 만난 새터민들의 아픔이 그녀에게 고스란히 전해졌다는 것, 그게 전부였다.

“힘들게 살아온 사람들이예요. 오로지 제대로 먹고 살기 위해 생사를 걸고 넘어왔죠. 7살짜리 아이는 얼마나 걸었는지 발톱이 다 빠져있을 정도고 세 살짜리 아이는 엄마랑 함께 오다 발각돼 복송된 엄마를 뒤로 하고 혼자 어른들 틈에 섞여 내려왔어요. 연로하신 어르신도 1살배기 아이를 들쳐업은 엄마도 제각각 사연이...”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그녀가 눈물을 보였다.

“그 사람들의 아픔이 곧 제 아픔이더라고요.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니 단번에 그들의 고통이 전해졌어요. 새터

민들의 몸은 성인일지 모르지만 문화적으로는 아이에 불과해요. 그들이 이곳에서 걸음마를 뒀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사회구성원으로서, 종교인으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머거사가 따로 있지 않았다. 오로지 인간답게 살기 위해 생사를 넘어 가까스로 남한땅을 밟은 이들 앞에서 그녀 자신도 치열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것이 그녀가 10년간 억척스레 새터민들을 위해 백방으로 뛰어난 이유다.

그녀의 전화번호는 10년전과 그대로 016으로 시작한다. 퇴소하고 난 새터민들이 오랜만에 연락했는데 결번이라는 메시지를 듣게 되면 실망할 것 같아서다. 덕분에 얼마 전에 새터민 중 한명이 스님이 됐다는 소식도 들 수 있었다.

새터민 모두가 자신에게는 동생이자 딸이며 엄마처럼 느껴진다고 말하는 흥성란 포교사. 일요일이면 법당 앞에 서서 새터민들을 한 명 한 명 정성스레 안아준다. 나갈 때도 마찬가지다. 가족, 고향과 떨어져 외롭고 정에 고픈 이들은 그녀 품에 안기기 위해 일렬로 서 있기 마련이다.

“제가 오히려 이곳에서 매년 부처님 가피를 입고 있는 것 같아요. 어렵게 살아온 사람들을 엄마 품속에 있는 것

처럼 편안하게 해주는 게 정말 행복해요.”

고군분투해온 지난 시간. 흥 포교사는 어려울 때 도움이 될 수 있었음을 잊지 않는다. 그는 “함께 가고자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참 고맙다”며 “그분들의 마음이 모여 눈길, 손길이 미치지 않는 구석진 곳에서 불교 위상도 올리고 사람들을 다독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후원회집은 어렵다. 새터민들이 퇴소할 때 각 종교에서는 전자렌지와 밥솥, 이불을 나란히 부담하고 있는데 불교에서는 온전히 지강 스님의 원력만으로 이불을 지원하고 있다. 한 달에 대략 5백만원씩 1년이면 6천만원에 달한다. 한 사찰에만 의존하기에는 만만치 않은 금액이다. 그릇역시 종교별로 지원하고 있지만 불교는 얼마 전 후원처가 끊겼다. 지금은 흥성란 포교사가 자비로 부담하고 있다. 어떤 도움이라도 절실한 것이 지금 새터민 포교의 현실.

그는 “탈북동포정착교육시설에서 종교활동을 허가한 이유도 지친 그들의 마음을 순화시키고 정화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며 “새터민들을 감싸안는 것이 불교가 할 일”이라고 인터뷰를 마치는 순간까지 새터민 포교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전법일기

열악한 대학생 불교동아리

어느 날 전남대 불교학생회장이 백양사에 찾아왔다. 함께 차를 마시면서 불교 동아리 운영이 무척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다. 찾아오는 학생 수가 많지 않아 학생은 내게 동아리에 찾아와 법문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여러 계층의 포교에 관심이 많았던 나는 주저 없이 법문을 약속했다.

며칠 후 저녁에 찾아간 동아리 방은 생각보다 무척 협소했다. 열 명이 앉으면 딱차는 작은 방에 불교서적과 컴퓨터 그리고 작은 불단이 모여 있었다. 대부분 학업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특히 4학년 학생들은 진로에 대한 고민 때문에 동아리 활동이 쉽지 않다고 했다.

그 후로도 2주에 한 번 법회를 진행하

을 거쳐 대학생 법회에 맞는 법요집을 발간하고 각 학교와 대학생 법회 진행 사찰에 무료로 배포했다.

그리고 불교동아리 방을 새롭게 꾸며주는 사업도 했다. 개선을 요구하는 학교는 많았지만 먼저 성남전법단에서 요청한 신구대학교의 불교 동아리 방을 바꿔 주기로 했다.

신구대 불교 동아리는 오랜 전통을 갖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학생도 줄고 법회도 끊어져 동아리가 폐쇄될 위기에 있었다. 아나나 다들까 동아리 방은 오래 묵은 탁자와 의자, 철제 캐비닛 그리고 이미 폐품이 되어버린 연등과 학생들이 신던 축구화 등 각종 잡동사니들로 어지러웠다. 우선 최소 비용으로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우선 잡동사니들을 다 걷어냈다.



그림 · 박구원

면서 불교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상담도 함께 했다.

학교 축제 때는 백양사 불교용품점에 특별히 부탁해 합장주와 핸드폰 고리 등을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해줬다.

학생들과 친해질 무렵 아쉽게도 나는 백양사를 떠나 서울 성북동에 있는 길상사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그 때 종단 포교원 포교국장 스님으로부터 뜻밖의 제안도 받았다. 종단 포교원 산하 대학생전법단 사무국장을 맡아달라는 것이었다.

대학생 전법단의 주된 활동은 현재 활동하고 있는 각 대학교의 불교 동아리 학생들을 지원하는 일과 대학생 법회가 없는 서울 시내 주요사찰에서 대학생법회를 신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었다.

조계사와 봉은사, 길상사 등 서울 시내 주요사찰에서 대학생법회를 운영하는 스님들과 만나 법회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고, 동국대 석림회 스님들과 법회 진행에 대한 어려움을 듣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했다.

법회 진행 경험이 없는 학생들도 쉽게 법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대학생불교연합회 간사와 함께 수차례의 논의와 편집

신발을 신고 다녔던 바닥에 장판을 새로 깔고, 여기저기 철이 벗겨지고 흉해진 불상대신 석굴암부처님의 모습이 담긴 액자를 벽에 걸었다. 묵은 먼지로 때가 낀 촛대와 향로를 새로 바꾸고, 불단은 목재소에서 나무를 구입해 직접 만들었다. 포목점에서 불단에 어울리는 천을 구입해 덮고 새로 장만한 법구를 올려놓으니 한결 깔끔했다. 서울과 성남을 수차례 오가며 맘을 흘렸지만 다 완성된 동아리방을 보고 활짝 웃는 성남전법단 사무과장과 신구대 불교 동아리 학생들의 모습에 피곤함은 깨끗이 달아났다.

지금도 많은 대학생들이 학업과 진로에 대한 고민 때문에 실행활동이 저조하다. 그럴수록 오히려 적극적인 실행활동으로 새로운 활력을 찾고 마음을 가다듬었으면 하는 바람을 감출 수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스님들이 손을 내밀어야 한다. 바쁜 실행활동으로 마음을 닦은 젊은 불자들이 미래의 불교를 이끌어 나갈 소중한 자원이 될 것이다.



수한 스님(前 백양사 포교국장)

순례가 시작되는 곳

www.ajetour.co.kr

SINCE 1999

아제여행사

AJE

☎.02)730-4008

{ 구광국대표 010-3048-4008 }

{ 구경모이사 010-2747-0908 }

금강스님과 함께하는 명상 힐링 여행 히말라야 고요왕국

행복지수 1위! **부탄 8일**

출발일: 3월8일/4월21일/5월28일

6월23일/7월7일/8월18일/9월1일

출발일: 3월 7일 **황금불탑의 나라 미얀마**

양곤-바간-헤이-만달레이

인도속의 또다른 인도 **삼일도 10일**

출발일: 3월 6일

태국불교용품 순례5일 **아유타야 캄차나푸리**

출발일: 2월 8일

출발일: 3월9일 **중남미 7개국 17일**

고대문명과 다양한 문화가 공존 하는 곳 신비의대륙

출발일: 3월23일 **중남미 3개국 11일**

패션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하늘과 맞닿은 영혼의 땅! **티베트 8일**

출발일: 5월7일/28일/6월21일/7월27일/8월30일

인도·네팔 성지순례 10일

2월 16일 (설연휴를 부처님과 함께...)

2월 23일 (4명부터 출발)

3월 6일 **출발일**

₩259만 ~

3월9일 구회산·황산·보타산 순례6일

출: 3월29일

지장보살(99m),천하비경 황산,남해관음상

★학령★ 보현보살상주처 **아미산 5일**

출: 3월10일

성도,아미산,낙산대불 **₩99만**

출: 3월23일 **화엄5주(두순-지엄-법정-청량사-규봉종일)**

서안,태원,오대산(문수보살)6일

출: 5월29일 **수미산·구계왕국 16일**

라싸,시가체,마나사르보호수,수미산,구계왕국

발칸3개국 & 동유럽1개국 8일

크로아티아,보스니아,몬테네그로 슬로베니아

출발일: 3월09일

인도네시아 **보로부두르대탑 5일**

화엄경 성지

임법계통과 선재동자 구법이야기

출발일: 3월24일/4월21일/5월28일/6월23일

7월7일/8월18일/9월1일

터키, 그리스 9일

이stanbul, 카파도키아, 파묵칼레

아테네, 미오소스

출발일: 3월23일

출: 6월5일 **동티벳불교 야칭스10일**

출발가능/월/수/금

진정한 티벳수행,만여문의 스님들의 수행처

출: 6월19일 **몽골5일(초원문화와 라마불교)**

울란바타르-에르텐-테를지

출: 9월초 **대만 공승제 5일**

중태선사,불광산사,자제공덕회